

# 2018년 국어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김억조\*

- 차례 -

1. 들머리
2. 새말 형성의 인지 기제
3. 새말의 의미 형성
4. 마무리

##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국어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새말에 대한 연구는 생성 원인과 구성에 대한 연구나 유형을 분류한 연구로 결과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새말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인문콘텐츠학부 부교수, ukjokim@daum.net

첫째, 2018년 새말은 은유에 기초한 새말, 환유에 기초한 새말, 개념적 혼성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었다.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모양이나 소리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고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선행어가 은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 간의 관계가 은유인 경우, 후행어가 은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가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환유에 기초한 새말은 형태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었다. 형태적 환유는 한 형태소나 단어의 일부가 전체 단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 단어의 어근이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내용적 환유는 선행어가 환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환유인 경우, 후행어가 환유인 경우, 환유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은유나 개념적 환유로 설명 되지 않는 경우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새말의 의미 형성 방식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새말에 관한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새말의 의미 형성 방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새말 의미 형성 방식에 관한 연구를 누적하여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의 인지적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새말,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개념적 혼성, 인지언어학, 의미구성

##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새말이란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거나, 기존의 말을 새로운 느낌

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말을 지칭한다.<sup>1)</sup> 이들이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서 안정된 지위를 차지하여야 새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말이 일시적인 유행에 의해 임시로 사용되고 소멸할 ‘임시어’나 ‘유행어’에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국어 단어로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김일환 2014: 149-150).<sup>2)</sup>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2018년 신어 조사』 자료집에 수록된 새말 434개를 대상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 형성에 관해 살펴본다.

지금까지 새말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새말의 생성 원인과 그 구성에 대한 연구(남기심 1983),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유형과 생성 원리를 분석한 연구(문금현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말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유형을 분류한 연구(시정곤 2006, 윤경선 2013), 신문 자료에서 새말 명사의 특성과 사용 양상 연구(김일환 2014),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 나타난 새말을 대상으로 한 분석적 연구(전영미·최동주 2007, 노명희 2006, 장혜연 2007, 이선영 2007, 이수진·김예니 2014)로 나누어진다.

새말의 의미적 특징에 관해 다룬 연구로는 임지룡(1997), 이찬규(2008), 문금현(2019)를 들 수 있다. 임지룡(1997)은 새말의 형성 원리를 형태론적 양상과 더불어 다의적, 은어적 확장 등에 관해 파악하였고 이찬규(2008)은 의미 형성에 적용되는 유연성·배의성 양상을 논의하면서

1) 새말의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면 남기심(1983)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하였다. 그 형태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지거나,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새말의 범주에 넣고 있다. 김광해(1993)은 언어 사회의 물질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로 한정하여 새말을 정의하고 있다. 문금현(1999)에서는 기존 언어와 유연성이 없이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이용해서 만든 말, 기존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말, 외국에서 차용한 말을 모두 새말의 개념 범주에 넣고 있다. 남길임 외(2014)는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거나, 기존의 말을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어휘로 정의하였다. 즉 새로운 개념, 직종, 첨단 학문 등이 도입되면서,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어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어휘도 새말로 선정하며, 융합, 축약, 탈락 현상에 의한 약어도 새말의 개념에 포함된다.

2) 이와 관련해서는 이선영(2007), 김일환(2014), 남길임(2015)를 참조하기 바람.

새말이 형성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배의가 이루어짐을 논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단어 형성의 원리가 형태론적 규칙에 따른다기보다는 의미론적 결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장 안에서 인접해서 쓰이는 표현들이 단어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도 인지적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문금현(2019)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에 쓰인 극한표현을 대상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처럼 새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해 다룬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하다.<sup>3)</sup>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새말이 만들어진 결과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언중들이 새말을 만드는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 2. 새말 형성의 인지 기제

인지언어학에서는 새말<sup>4)</sup> 형성에서 엄격한 합성성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말이 만들어질 때 전체 의미는 그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만으로 전체의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새말 형성의 기제인 개념적 은유, 개념적 환유, 개념적 혼성에 관해 살펴본다.

개념적 은유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 CMT)은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George Lakoff & Mark Johnson)의 『삶으로서의 은유』(Metaphors We Live By)(1980)로 시작되었다. 이 이론은 은유를 언어의 장식적 장치가 아니라 실재를 구조화한다고 보았다. 인지언어학적 견해

3) 영어 합성어에 관해서는 Benczes(2006)의 논의가 있고, 한국어 명사-명사 합성어 중 은유적 합성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병창(2013), 김진해(2014)가 있다.

4)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일컫는 단어의 개념을 넘어서는 단위까지를 새말의 범주로 사용한다. 즉, 구 이상의 단위까지 지칭하는 것으로 형식과 의미의 짝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를 지칭한다.

에서 통용되는 개념적 은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개념적 영역을 또 다른 개념적 영역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개념적 은유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에 비추어 이해한다.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ICM) 내에서 매체라는 한 개념적 실체가 목표라는 다른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촉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Radden & Kövecses 1999: 21). 환유를 Lakoff & Johnson(1980: 36)에서는 일차적으로 ‘지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Kövecses(2002/2010: 173)에서는 ‘정신적 접근’으로, 환유의 ‘지시’를 정교화 하였다. Langacker(1993: 30)에서는 화자가 어떤 개체에 정신적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관련되면서 동시에 이보다 더 현저한 개체를 지시점(reference point)으로 언급하는 것이 환유라고 하였다. 즉, 개념적 환유는 한 인지영역 내에서 매체가 목표에 접근하게 하는 인지 과정이다. 이때 매체와 목표 간의 관계는 우연적이고 개념적으로 필연적이지 않다. 또한 개념적 환유에서 목표는 전경화되고 매체는 배경화되며 매체와 목표 간의 환유적 연결 강도는 매체와 목표 간의 개념적 거리와 환유적 매체의 현저성에 따라 달라진다(김동환 2019: 5).

개념적 혼성 이론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정신공간이 혼성공간을 생산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정신공간 이론에서 발전했다. 혼성공간에는 각각의 입력공간에서 나온 구조의 선택된 양상과 그 자체의 발현구조가 들어 있다. 개념적 혼성 이론에 중심적인 것은 개념적 통합 연결망(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이다(Fauconnier & Turner 1998).

원형적인 개념적 통합 연결망은 네 개의 정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인지영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해 구조화된 두 개의 입력공간, 개념적 통합 연결망 속의 모든 정신공간들이 공유하는 구조가 들어 있는 한 개의 총칭공간, 그리고 한 개의 혼성공간이 그것이다. 개념적 혼성에

서, 입력공간의 모든 요소들이 투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입력공간은 선택적이다. 혼성공간에는 발현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입력공간에는 없는 요소들이다.

결국 영역이 둘이면서 다른 영역에 속한 것의 유사성이 드러나면 은유를 활용한 것이고 하나의 영역 속에서 인접성이 파악되면 환유를 활용한 것이다. 은유나 환유로 설명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 창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적 혼성을 들 수 있다.

### 3. 새말의 의미 형성

이 장에서는 2018년 새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 형성에 관해 살펴본다. 이미 만들어진 ‘새말’을 대상으로,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은유, 환유, 개념적 혼성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언중들이 새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한 인지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은유에 기초한 새말, 환유에 기초한 새말, 개념적 혼성에 기초한 새말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3.1. 은유에 기초한 새말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다시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형태적 은유

언어의 형태적인 측면으로는 모양과 소리를 들 수 있다. 먼저 모양의

유사성을 가진 형태적 은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이번에는 ‘땡반’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 b. 그러나 멤버들은 ‘네주얼’, ‘탕진잼’ 등의 급식체에 말문이 막혔고
- c. 출연자는 칠판에 ‘머박’이란 단어를 보여 주며 “머박이라고 쓰지만 ‘대박’이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 d. 이를 본 네티즌들은...“솔로 음원 팡탈 예상!”...등의 반응을 보였다.
- e. ‘롬콕롬콕’의 위아래를 뒤집어 보니 ‘눈물눈물’로 보였다.

(1a-d)는 글자 모양을 변형한 것이다. ‘땡반, 네주얼, 머박, 팡탈’은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명반(名盤), 비주얼, 대박, 광탈’을 비슷한 글자 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1a)의 ‘땡반’은 ‘이름나거나 훌륭한 음반’을, (1b)의 ‘네주얼’은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모양, 차림새 등의 외모. 또는 그러한 것들이 주는 인상’을, (1c)의 ‘머박’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1d)의 ‘팡탈’은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탈락함’을 의미한다. (1e)의 ‘롬콕롬콕’은 슬프거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반복해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눈물눈물’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1)은 글자 모양의 유사성에서 온 것이다. 다음은 소리의 유사성이 있는 것을 살펴본다.

- (2) a. 여기에 “올희 액이,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올희 액이, 오빠랑 영화 볼래?” 등 복학생들의 부담스러운 농담까지 더해져 웃음을 자아낸다.
- b. ‘에바참치’ 춤다. / 이외에도 ‘과하다, 오버한다’는 뜻의 은어 ‘에바’ 또한 ‘에바참치뽕치’ 등 뜻도 모르는 이야기들로 이어진다.

- c.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가즈아’,…손해를 본 투자자를 뜻하는 ‘흑우’ 등의 신조어는 20~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가상 화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제아무리 ‘흑우’라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 d. 이러한 키워드에 맞춰 나타날 구체적인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는 ‘홈 루덴스’가 지목됐다. / 누군가에겐 맛 좋은 커피가, 또 누군가에겐 피규어가 휘소가치를 가진다.

(2)는 소리의 유사성을 가진 은유이다. (2a)의 ‘올희 액이’는 ‘우리 얘기’를 변형한 말로, 주로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다. (2b)의 ‘에바참치’와 ‘에바참치콩치’는 ‘정도가 지나침을 과장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에바’는 영어 ‘over’의 소리를 변형한 말이다. (2c)의 ‘흑우’와 ‘흑우’는 ‘호구’를 변형한 말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가리킨다. (2d)의 ‘홈 루덴스’는 집에서 하는 놀이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또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데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에서 유래하였다. 집을 뜻하는 ‘홈(home)’과 ‘호모’의 소리가 유사한 것에서 온 것이다. 또한 ‘휘소가치(揮少價値)’는 즉흥적이고 가볍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고 만족감을 주는 소비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기화되어 흠어 없어짐’을 뜻하는 ‘휘발’과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를 뜻하는 ‘희소가치’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것 역시 ‘휘-’와 ‘희-’의 초성 소리가 유사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 3.1.2. 내용적 은유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선행어가 은유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a. 평소 ‘댕댕미’로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던 000이 뮤직비디오에  
서는 감성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 b. 그는 과감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메기 기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c. 가상 화폐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 준다는 점을 내세  
워…유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특정 종목을 사도록 유도하  
는 ‘펌핑방’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 d. ‘살코기 세대’는 인생에 풍미를 더하는 마블링을 짝 짝 퍽퍽한 삶  
일까, 저추장스러운 기름기를 제거한 담백한 삶일까.
- e. ‘우주 공장’이 가져오는 지루함을 날려 버릴 수 있는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까지 풀기 좋은 최적의 장소는 단연 ‘코인 노래방’이 아  
닐까.

(3a)의 ‘댕댕미’는 ‘외모나 분위기 따위에서 강아지 같은 귀여움을 풍기  
는 사람의 매력’을 의미한다. ‘멍멍이’를 뜻하는 ‘댕댕이’와 아름다움을 뜻  
하는 ‘미(美)’를 결합하여 만든 말인데 선행어인 ‘댕댕-’이에 [귀여운 사람  
은 강아지이다]는 은유가 나타난다.<sup>5)</sup> (3b)의 ‘메기 기업’은 기존 동종 기업  
의 경영을 활발하게 만드는 신생 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미꾸라지가 메  
기를 피하려고 빨리 움직이는 것을 기업 경영에 비유한 ‘메기 효과’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업 경영은 생태계의 삶이다]는 은유에 기초한다. (3c)  
의 ‘펌핑-방(pumping房)’은 ‘특정 가상 화폐의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개  
설된 온라인 채팅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 올리기를 물 올리기 위해  
펌프질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3d)의 ‘살코기 세대’는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최소화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나타내는 말인데 [삶의 본질은 고  
기다] 혹은 [인생은 고기다]의 은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기름기

5) 이 단어는 형태적 은유와 내용적 은유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임.

를 다 뺏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3e)의 ‘우주 공장’은 앞 강의와 뒤 강의 사이에 생긴 긴 공장 시간을 넓은 ‘우주’에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 시간을 공간에 비유한 것이다. 다음은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은유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a. 상당수 여성이 매일 화장하고 하이힐을 신고, 치마나 불편한 속옷을 입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외모 단장은 ‘꾸밈 노동’, ‘꾸밈 노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 b. 키보드가 도로 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키키라니’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 야외 활동이 늘면서 ‘자라니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 c. 또 다른 OO 이용자는 최근 “수많은 직장인들이 ‘넵병’을 앓고 있다.”라며 OO 대화창을 편집한 사진을 올렸다.

(4a)의 ‘꾸밈 노동, 꾸밈 노역’은 ‘여성이 외모를 단장하는 일’을 몹시 괴롭고 힘든 노동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4b)의 ‘키키라니’와 ‘자라니-족<sup>6)</sup>’은 ‘도로에서 전동 키보드를 타는 사람’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나타내는 말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고라니’처럼 주로 위험하게 주행하는 키보드 운전자를 뜻하거나 위험하게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뜻한다. 이 두 예는 [키보드는 고라니이다, 자전거는 고라니이다] 은유에 기초한다. (4c)의 ‘넵병(넵病)’은 직장인들이 메신저 따위에서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주로 ‘넵’이라고 대답하며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상사에게 답할 때마다 ‘넵’을 자주 사용하는 현상을 병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후행어가 은유인 경우이다.

6) ‘자전거’와 ‘고라니’를 결합한 ‘자라니’와 ‘사람 또는 무리’를 의미하는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 (5) a. 털썩 주저앉은 상태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면 근육 잔고를 걱정해야 한다. /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육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티브이 광고와 홈쇼핑에선 ‘근육 저금’, ‘근육 잔고’ 등의 용어를 쓴 제품 소개가 수시로 나온다.
- b. 이날 000은 “제가 한때 소비 요정이었는데 농촌에는 살 게 없다. 살 게 농기계밖에 없다. 그런데 되게 갖고 싶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 ‘통장 요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 배경은 데뷔 때부터 외쳐 온 절약, 저축의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받은 덕분이다.
- c. 이른바 ‘녹조 라테’라고 불리는 000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 강’이 10대 자본 쓰레기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5a)의 ‘근육 잔고’는 ‘남아 있는 근육의 양’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노인의 근육량을 말할 때 사용하고 ‘근육 저금(筋肉貯金)’은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일’을 말한다. 이 두 표현은 사람의 ‘근육의 양’을 ‘돈’에 비유한 것이다. (5b)의 ‘소비 요정(消費妖精)’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고 ‘통장 요정(通帳妖精)’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목적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두 표현은 [사람은 요정이다]는 은유에 해당하므로 후행어가 은유인 표현이다.<sup>7)</sup> (5c)의 ‘자본 쓰레기(資本 쓰레기)’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만든 형편없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쓰레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다음은 선행행어가 나누어지지 않는 예이다.

(6) 근황 사진을 본 팬들은 “뽀시래기가 어른 됐네.”, “이제 오빠라고  
7) 선행어인 ‘소비’와 ‘통장’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통장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을 뜻하므로 ‘형식적 환유’에 해당한다.

마음 편하게 불러도 되겠다.”, “진짜 잘 컸다.” 등 열띤 호응을 보였다.

(6)의 ‘뽀시래기’는 ‘나이가 어리거나 작고 귀여운 사람 또는 동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물건의 ‘부스러기’를 이르는 사투리로 보인다.<sup>8)</sup> 이를 통해 [어린 사람은 물건 부스러기이다]는 은유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환유에 기초한 새말을 살펴본다.

### 3.2. 환유에 기초한 새말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Kövecses(2002/2010: 179-184)는 환유를 크게 ‘전체와 부분’의 환유, ‘부분과 부분’의 환유로 나누고 환유가 작동하는 ICM의 종류를 분류하였다.<sup>9)</sup> 임지룡(2006)은 한국어 환유 표현은 ‘확대 지칭 양상, 축소 지칭 양상, 상호 전이 양상’으로 나누었다. 박재연(2014)에서는 ‘지시대상에서 발생하는 인접성, 개념적 인접성, 언어 표현에서 발생하는 인접성’으로 분류하였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환유에 기초한 새말은 형태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누어 논의한다.

#### 3.2.1. 형태적 환유

형태적 환유는 한 형태소나 단어의 일부가 전체 단어를 대표하는 과정

8) 종이 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스러기’를 이르는 전라도 지방의 사투리/(잘게 부썩진)가루를 의미하는 경상도 사투리’로 인터넷 오픈 사전에 올라 있다.

9) 전체와 부분: 구성 성분 ICM, 복합 사건 ICM, 범주-구성원 ICM, 범주-속 성 ICM. / 부분과 부분: 동작 ICM, 인과 ICM, 생산 ICM, 통제 ICM, 소유 ICM, 포함 ICM, 불확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기타 ICM.

10) ‘지시대상’과 ‘개념’은 의미의 의미에서 ‘지시설’과 ‘개념설’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의미’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표현’은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형태’와 ‘내용’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단어의 어근이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김동환·이미영 율김 2016: 120-121).<sup>11)</sup> 이는 언어의 다양한 단위들 간의 순수한 형태적 관계에 기초한 환유이다. 형태적 환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단어의 일부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행어가 형태적 환유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a. 빠미니스트, 빠미니즘

b. 편세-권(便勢圈), 골세-권(golf勢圈), 무세-권(無勢圈), 올세-권(Oliveyoung勢圈), 직세-권(職勢圈)

c. 편과-족(便과族), 편채-족(便菜族), 편가-족(便家族)

d. 카페인-족(Kakao story Facebook Instagram族)

e. 리자-님(理者님)

(7a)의 ‘빠미니스트’는 ‘딸을 위해 페미니스트가 된 아빠’를, ‘빠미니즘’은 ‘딸을 위해 아빠가 갖는 페미니즘’을 뜻한다. 여기서 ‘-빠’는 ‘아빠’에서 절단된 것이다. (7b)의 ‘편-’은 ‘편의점’을, ‘골-’은 ‘골프장’을 ‘무-’는 ‘무중력 시대’를, ‘올-’은 ‘Oliveyoung’을, ‘직-’은 ‘직장’을 나타낸다.<sup>12)</sup> (7c)는 ‘편

11) 형태적 환유와 관련해서는 언어의 형태적 분석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절단 현상은 절단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성어나 약칭어를 만들 때도 생긴다. 혼성어와 약칭어는 구성 성분이 되는 단어의 일부를 절단하여 결합시킴으로써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전자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생성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 단어와 의미가 동일한 단어를 생성한다. ‘라면’과 ‘떡볶이’를 결합하여 만든 ‘라볶이’는 혼성어이고, 기존 단어인 ‘교육 실습생’에서 절단하여 된 ‘교생’은 약칭어가 된다. 이러한 단어의 생성에도 절단이 일어나지만 ‘라’와 ‘교’ 같이 절단된 성분 단독으로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단어와 차이가 있다 (이선영·정희창 2019: 271-272).

12) ‘편세-권(便勢圈)’은 ‘편의점이 인접해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골세-권(golf勢圈)’은 ‘골프장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무세-권(無勢圈)’은 ‘서울시에서 건립한 문화 공간인 ‘무중력 시대’가 가까이에 있어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올세-권(Oliveyoung勢圈)’은 화장품, 생활용품 따위를 살 수 있는 상점이 인접해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직세-권(職勢圈)’은 직장이 인접해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출근과

의점 과일 구매족’, ‘편의점 채소 구매족’, ‘편의점 가정 간편식 구매족’을 줄인 말로 ‘편-’은 편의점을 대표하고 ‘과-’, ‘채-’, ‘가-’는 ‘과일, 채소, 가정 간편식’을 대표하는 것이다.<sup>13)</sup> (7d)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찾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일종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가 단어 전체를 대표하는 ‘카페인’에 ‘사람 또는 물건’을 뜻하는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7e)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관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다음은 후행어가 환유인 경우이다.

(8) a. 견파라치

b. 펫-부심, 평-부심

(8a)의 ‘견파라치’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파라치’는 ‘파파라치’에서 절단된 경우이다. (8b)의 ‘펫-부심’은 ‘기르는 애완동물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음을 이르는 말’을, ‘평-부심’은 ‘평양냉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부심’은 ‘자부심’에서 절단된 경우이다. ‘자부심’을 의미하는 절단어 ‘부심’은 원래 ‘더위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는 ‘더부심’과 ‘먹는 데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는 ‘먹부심’이 먼저 쓰이다가 ‘외모부심, 얼굴부심’ 등으로 그 쓰임이 확대

퇴근이 가능한 주거 지역’을 나타낸다. 동일한 방식으로 ‘뷰세-권(view勢圈)’도 있는데 숲, 강, 호수 따위가 주변에 있어 ‘전망이 좋은 주거 지역’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뷰’는 절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적 환유 목록에서는 제외된다.

13) 박재연(2014: 24)에서도 대학생들이 ‘개강 총회, 개강 파티’를 ‘개총, 개파’로 줄여 사용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생일 파티, 생일 선물’을 ‘생파, 생선’으로 줄여 사용하는 예를 보인다. 또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원걸, 소시, 슈주’ 등으로 줄여 부르는 것과 더불어 ‘Thank god, it's Friday’를 줄여서 ‘T.G.I.F’로 사용하는 예를 들고 있다. 이들 예에서 선택된 음절이 해당 언어 표현에서 두드러진 음절임을 보이고 있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편과-족(便과族), 편채-족(便菜族), 편가-족(便家族)’은 각 어절에서 한 글자씩 골라서 단어를 만드는 줄임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유에 의한 단어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었다.

되었고 그 이후 ‘부심’이 단독으로도 ‘자부심’의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선영·정희창 2019: 272). 다음은 선행어와 후행어 모두 형태적 환유인 예이다.

(9) 코리아노, 막페인, 카캉스, 면제로이드, 디플로테인먼트, 런-예인, 립-덕

(9)의 ‘코리아노’는 ‘아메리카노에 물을 더 넣어 먹는 커피’를 뜻하는 말로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Korea)’와 ‘아메리카노(americano)’를 절단하여 결합한 말이다. ‘막페인’은 ‘삼페인처럼 탄산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뜻하는 것으로 ‘막걸리’와 ‘삼페인’을 절단하여 결합한 말이다. ‘카캉스’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것으로 ‘카페(café)’와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vacance)’를 절단하고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면제로이드’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병역 혜택에 따른 동기 부여로 경기력이 향상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병역 면제’와 ‘스테로이드’에서 절단되어 결합된 말이다. ‘디플로테인먼트’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통해 국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외교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diplomacy’와 ‘entertainment’를 절단하여 결합한 말이다. ‘런-예인’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달리기’를 의미하는 ‘러닝(running)’과 ‘연예인(演藝人)’을 절단하고 결합한 말이다. ‘립-덕’은 립스틱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립스틱(lipstick)’과 ‘덕후’를 에서 만든 말이다.<sup>14)</sup> (9)의 예들은 선행어와 후행어 모두 절단된 형태적 환유라 할 수 있다.

14) ‘덕후’는 ‘오덕후’의 절단어인데 이선영·정희창(2019: 273-4)에 따르면 ‘오덕후’는 일본어 ‘오타쿠’를 음차한 말로 일본어에서 상대방, 혹은 제삼자의 집을 높여 부르는 말인 ‘귀택’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특정 취미나 사물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덕후’라는 절단어가 쓰이기 시작하다가 이후 ‘덕’이 절단되어 ‘오덕후’의 의미로 쓰인다.

## 3.2.2. 내용적 환유

내용적 환유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행어가 환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환유인 경우, 후행어가 환유인 경우, 환유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행어가 환유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a. 이른바 ‘곤룡포 계보’에 입성한 000이 ‘00’를 통해 보여 줄 그 만의 ‘현종’으로 벌써부터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계약서를 쓰는 사이 밖에서는 차의 연료 분사 노즐과 퓨즈를 빼놓는 일명 ‘덜덜이 작업’이 이뤄졌다.  
 c.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버스 안에 테이크 아웃 컵을 들고 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커피 갈등’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0a)의 ‘곤룡포 계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을 연기한 배우들의 흐름이 이어져 온 연속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로 왕이 입던 옷인 ‘곤룡포’가 ‘왕’을 대표하는 관계이다. (10b)의 ‘덜덜이 작업’은 중고차 구매자가 계약서를 쓰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일부러 고장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덜덜이’는 ‘소리’로 ‘고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10c)의 ‘커피 갈등’은 ‘버스 승객들이 밀봉되지 않은 음료를 들고 승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나타낸다. 승객이 버스 내에서 음료를 흘리거나 쏟아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와 관련하여 생기는 논쟁이나 갈등을 말하는데 음료의 한 종류인 커피가 음료 전체를 대표한다.

- (11) a. 현재 국내 00, 00 등의 시세는 해외보다 항상 높게 형성돼 있

- 다. 흔히 이런 거품가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 b. OO 가격이 “역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 c. 일본은 OO 최대 거래국인데 스시 프리미엄은 김치 프리미엄 못지않게 높은 편이다.
- d. 유럽에도 미묘하지만 약 1% 수준의 ‘치즈 프리미엄’이 있다.

(11)은 ‘음식’이 그 음식을 먹는 나라를 대표하는 환유이다. (11ab)에서는 ‘김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즉 (11a)의 ‘김치 프리미엄’과 (11b)의 ‘역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가상 화폐 시세가 세계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11c)의 ‘스시 프리미엄’은 일본의 가상 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11d)의 ‘치즈 프리미엄’은 유럽의 가상 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11)에서 ‘김치’는 한국을, ‘스시’는 일본을, ‘치즈’는 유럽을 지칭한다.

- (12) a. 직장인, 주부 할 것 없이...가상 화폐로 쉽게 돈을 번 사람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비트코인 우울증’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b. 2030 세대가 ‘코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로 손쉽게 큰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 c.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뛰어들며 ‘비트페인’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12a)의 ‘비트코인 우울증’은 가상 화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를 지칭하는데 (12b)에서처럼 앞부분이 절단되어 ‘코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12c)의 ‘비트페인’에서처럼 뒷부분이 절단되어 ‘비트’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트코인 우울증’은 ‘가상 화폐’의 뜻인 ‘비트코인’과 ‘우울증’이 단순히 결합된 것이 아니라 세상사의 지식이 들어가야 의미 해석이 가능해진다.<sup>15)</sup>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쉽게 큰돈을 번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로 인한 의욕 저하, 우울함 등이 생기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이 말이 성립된다. 이는 (12c)의 ‘비트페인’도 마찬가지이다. 온종일 가상 화폐의 시세 확인과 투자에 몰두하느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이른다.

(13) a. 남자만 나오는 영화나 예능 등을 ‘남탕 영화’, ‘남탕 예능’ 등으로 부른다.

b. ‘마피아 포비아’의 시대에 살펴보는 마피아의 유래.

(13)은 선행어의 속성이 부각되는 환유이다. (13a)의 ‘남탕 예능’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탕’의 속성이 부각되어 출연진이 전부 남자인거나 여자에 비해 남자 출연자의 수가 더 많은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이르는 말이고, (13b)의 ‘마피아 포비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마피아의 속성이 드러난다. 다음은 선행어와 후행어가 결과-원인 관계인 경우이다.

(14) a. 만약 OOO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코피 공격**을 가할 경우 전면 전으로 확대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동

15) ‘김밥’의 의미 해석에는 언어로 기호화되지 않은 비파생적 속성들(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 참기름, 참깨 등이 함께 들어간다거나, 둥글고 길게 마는 전형적인 모양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비파생적 속성은 ‘세상사 지식(문화 지식)’에 의존한다(김진해 2014: 31).

- 맹 외교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b. 그는 “초고소득자 증세로 세금을 더 내면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 과세’는 어떠냐?”라고도 했다.
- c.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명예 과세’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d. 000 00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a)의 ‘코피 공격’은 제한된 범위를 먼저 공격하여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행동을 뜻한다. 싸움에서 선공으로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리는 일을 빗댄 것으로 ‘공격’의 결과 ‘코피’가 나므로 ‘결과-원인’ 관계를 나타낸다. 즉, ‘코피’가 공격을 당한 후 입은 상처 전체를 대표하는 환유이다.<sup>16)</sup> (14b-d)의 ‘존경 과세’, ‘명예 과세’, ‘사랑 과세’는 대기업이나 소득 또는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세율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지칭한다. 즉,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를 지칭하는데 그 결과가 달리 부각된다. 과세의 결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존경 과세’, 명예를 높인다는 뜻에서 ‘명예 과세’,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에서 ‘사랑 과세’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결국 과세의 결과가 부각되는 환유이다. 다음은 원인-결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Radden, G. & Z. Kövecses(1999: 21)에 따르면 환유는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하나의 개념적 매체가 다른 개념적 매체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해 주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환유를 전체 ICM과 부분 사이의 관계, ICM의 부분들 사이의 관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역 ICM’에 ‘원인으로 결과를 대신함’과 ‘결과로 원인을 대신함’이 있다.

- (15) a. 여성취업 준비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채용 성차별은 그만큼 심각하다. 하지만 그것은 ‘취준 페미’들이 만든 괴담처럼 취급되어 왔다.
- b. 게임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면서 ‘겜 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 c. 지금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상사 병’에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있네요?
- d. 알바생들은 “잔이 무거워 손목이 시큰거린다.”, “컵이 자주 깨져 손을 다칠 수밖에 없다.”라며 설거지옥에 빠지게 된 생활에 대해 토론했다.

(15a)의 ‘취준 페미’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성차별로 인해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게 된 사람을 나타내고 (15b)의 ‘겜 테크’는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아 돈을 벌거나, 게임을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을 이른다. (15c)의 ‘상사병(上司病)’은 직장 상사의 행동이나 업무 지시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나 화병을, (15d)의 ‘설거지옥(설거地獄)’은 너무 많은 설거짓거리로 인해 힘든 상황을 ‘지옥’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15)의 예는 선행어가 원인이고 후행어가 그 결과이다. ‘취업 준비’로 인해 ‘페미니스트’가 되고 ‘게임’으로 ‘재테크’를 하고, ‘상사’ 때문에 ‘병’에 걸리고, ‘설거지’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환유가 두 번 겹쳐져 해석되는 경우이다.

- (16) a. 언택트는 4차 산업 혁명 및 인공 지능, 증강 현실과 맞물려 더 심화되는 추세다.
- b. 언택트 기술, 언택트 마케팅, 언택트 소비, 언택트 서비스, 언택트-족

(16a)의 ‘언택트’는 ‘언(un-)’과 ‘콘택트(contact)’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판매자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거래를 하는 일’을 뜻한다. 문자적 의미로는 ‘만나지 않음’인데 ‘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판매자와 고객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먼저 연상되어야 한다. 즉 오프라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만남’이 ‘거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만남이 거래를 대표한다]는 환유가 만들어진다. 그 후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만나지 않는 행동’이 ‘거래’ 전체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두 번의 환유에 의해 부각된 ‘언택트’에서 (16b)와 같은 파생적인 용어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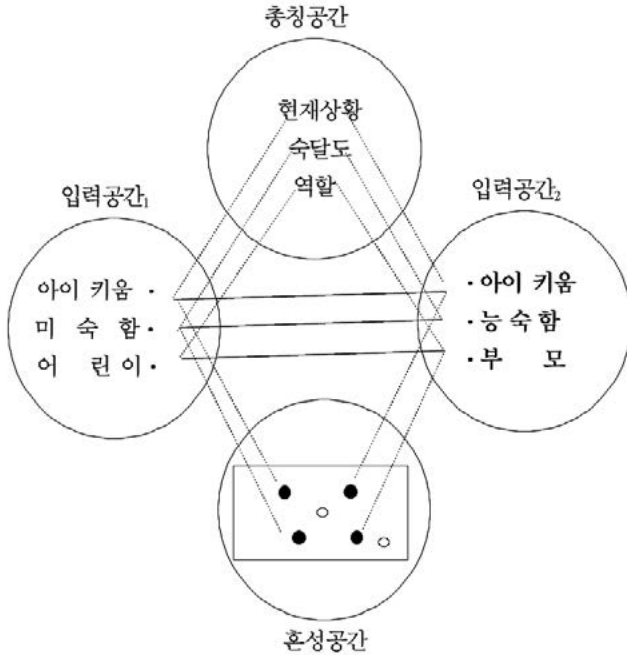
### 3.3. 개념적 혼성에 기초한 새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말 형성은 두 영역의 유사성이나 한 영역 안에서 인접성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 혼성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합성어의 경우에는 벤체쉬(2006)의 연구를 들 수 있고, 국내의 연구로는 이종열(1999)와 김동환(2013)을 들 수 있다. 개념적 혼성에 기초한 새말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일각에서는 미성숙한 **키더런트**, 취약 계층 등 아동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은 정작 부모 교육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17)의 ‘키더런트’는 ‘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부모’를 뜻하는 ‘패런

트(parent)’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즉 ‘아이를 키우는 일에 미숙한, 나이가 어린 부모’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개념적 혼성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키더런트'의 개념적 혼성망

[그림 1]에서 '입력공간1'은 '어린이'의 특성으로 구축된 공간이며 '입력공간2'는 '부모'의 특성으로 구축된 공간이다. '총칭공간'에는 [현재상황], [숙달도], [역할]이 있다. 공간횡단 사상에 의해 '입력공간1'의 [아이 키움], [미숙함], [어린이]와 '입력공간2'의 [아이 키움], [능숙함], [부모]가 각각 일대일로 대응된다. 그리고 투사에 의해, 입력공간1의 [아이 키움]과 입력공간2의 [아이 키움]이 혼성공간으로 투사되어 융합되며 입력공간1의

[미숙함]과 입력공간2의 [부모]가 개별적으로 혼성공간으로 투사된다. 개별적 혼성의 결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미숙한 부모’라는 의미가 구성된다. 다음의 (18)도 마찬가지로이다.

- (18) a.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이상이 ‘올로족’으로 살기보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책카족’ 또는 ‘염전족’을 자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입퇴-양난(入退兩亂), 톤팡질팡, 주경-야디<sup>17)</sup>, 토사호팽(兔死虎烹)

(18)의 ‘염전-족’은 ‘검소한 생활을 통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나타낸다. ‘염전족’이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입력공간1’에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공간이 구축되어 ‘짜다’가 연상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다의어인 ‘인색하다’의 의미를 가진 ‘짜다’가 ‘입력공간2’로 구축된다. 그래서 ‘혼성공간’에서 ‘염전족’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8b)의 ‘입퇴양난’은 ‘한쪽에서는 입사를 위해 난리를 겪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퇴사를 위해 난리를 겪고 있음을 이르는 말’로 ‘진퇴양난’에서 ‘입퇴’와 ‘진퇴양난’이 혼성된 말이다. ‘톤팡질팡’은 ‘자신의 피부색에 어울리는 화장품 색깔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양. 또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색깔을 나타내는 ‘톤’과 ‘갈팡질팡’이 혼성된 말이다. ‘주경-야디’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디제잉을 한다는 뜻으로, 바쁜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디제잉함을 이르는 말’로 ‘주경야독’과 ‘디제잉’이 혼성된 말이다. 토사호팽(兔死虎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그 마스코트인 수호랑의 지위가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토사구팽’과 ‘수호랑’이 혼성된 말이다.<sup>18)</sup>

17) 晝耕夜<영><←Djing

18) ‘토사호팽’에서 ‘호’가 ‘수호랑’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환유’가 먼저 나타난다.

#### 4. 마무리

이상으로 2018년 새말의 의미 형성에 관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새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생성 원인과 구성에 대한 연구나 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새말의 의미 형성이나 과정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새말의 의미 형성을 과정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새말은 은유에 기초한 새말, 환유에 기초한 새말, 개념적 혼성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모양이나 소리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고 내용적 은유에 기초한 새말은 선행어가 은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 간의 관계가 은유인 경우, 후행어가 은유인 경우, 선·후행어가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셋째, 환유에 기초한 새말은 형태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과 내용적 환유에 기초한 새말로 나눌 수 있었다. 형태적 환유는 한 형태소나 단어의 일부가 전체 단어를 대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단어의 어근이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내용적 환유는 선행어가 환유인 경우, 선행어와 후행어의 관계가 환유인 경우, 후행어가 환유인 경우, 환유가 겹쳐서 해석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은유나 개념적 환유로 설명 되지 않는 경우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새말의 의미 형성 방식을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새말에 관한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새말의 의미 형성을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한 해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고 양적 분석을 통해 새말 구성 방식에서 은유와 환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지 못한 것은 남은 과제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Construction of Korean New Word in 2018

Kim, Eok-jo(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construction of 2018 new words,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Among studies on new word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most of them examined the sources or construction of new words or categorized the types of them. As such, the existing studies did not deal with the meaning construction of new words, 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characteristics of new words,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irst, 2018 new words can be categorized into metaphor-based, metonymy-based, conceptual blending-based ones. Second, metaphor-based new words can be divided into formal metaphor-based and content metaphor-based ones. Formal metaphor-based new words can be grouped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of shapes or pronunciation, while content metaphor-based new words can be grouped based on some cases: prior words are metaphor; back words are metaph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elements are metaphor. Third, metonymy-based new words can be divided into formal and content metonymy-based ones. The former is the process in which a morpheme or parts of a word represent the whole word, the case in which the root or parts of a word represents the whole world.

The latter can be divided into five cases: prior words are metonymy; back words are metonym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elements is metonymy. Finally,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may be useful, if conceptual metaphor or metonymy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meaning construction of new word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examined the meaning construction of new words created in 2018, which has not been adequately discussed, though data collected during just one year were not sufficient, and an quantitative analysis could not explain metaphor's and metonymy's portions in constructing new words.

**Key word:** new words,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conceptual blending, cognitive linguistics, meaning construction

[ 참고문헌 ]

□ 단행본

- 국립국어원, 『2018년 신어 조사』, 2018.
- 김광해, 『국어 어휘론』, 집문당, 1993.
- 김동환, 『개념적 혼성 이론: 인지언어학과 의미구성』, 박이정, 2002.
- 김동환, 『환유와 인지: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한국문화사, 2019.
- 김동환·이미영 율김, 『비유 언어의 관습성: 인지언어학과 코퍼스언어학적 탐구』, 로고스라이프, 2016.
- 김종도,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2007.
- 남기심, 『한국어의 제 문제』, 일지사, 1983.
- 남길임 외, 『2014년 신어』, 국립국어원, 2014.
- 임지룡 외,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19.
- 최지훈,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와 환유 연구』, 혜안, 2010.
- 최형용,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역락, 2018.
- Benczes, R,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The Semantics of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Noun-Noun Combination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6(김동환·이미영 율김, 『영어의 창조적 합성어-은유적, 환유적 합성어의 의미론』, 로고스라이프, 2014).
- Bierwiazzonek, B, 『Metonymy in Language, Thought and Brain』, Equinox Publishing Ltd. 2013(김동환·이미영 율김, 『환유와 언어·사고·뇌-인지언어학적 탐색』, 로고스라이프, 2016).
- Cruse, D.A, and Croft, William,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김두식·나익주, 『인지언어학』, 도서출판 박이정, 2010).
- Dancygier. B. & E. Sweetser, 『Figurative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임지룡·김동환 율김, 『비유 언어』, 한국문화사, 2015).
- Evans, V. &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 Evans, V, 『How Words Me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출판부, 2012).
- Fauconnier, G,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Kövecses,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2010
-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나익주·노양진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 Littlemore, J, 『Metonymy: Hidden Shortcuts in Language, Thought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김동환·이승주 옮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언어, 사고, 의사소통의 숨겨진 지름길』, 로고스라이프, 2018)

□ 논문

- 김억조, 「대립어」,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19, 257-274면.
- 강병창,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고찰」, 『인문연구』 68, 2013, 125-152면.
- 김일환, 「신어의 생성과 사용」, 『어문연구』 42-1, 2014, 147-176면.
- 김정은 외,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 연구」, 『국제언어문학』 43, 2019, 63-88면.
- 김진해,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와 인지언어학적 해석」, 『국어학』 70, 2014, 29-57면.
- 남길임,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2005 · 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2015, 205-233면.
- 노명희,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2006, 40-45면.

- 문금현,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분류 및 생성원리」, 『국어학』 33, 1999, 295-325면.
- 문금현, 「신어 생성의 최근 경향 분석-극한표현을 중심으로」, 『어문학』 145, 2019, 151-177면.
- 박선옥, 「축약에 의해 생성된 줄임말의 구조 분석-2014년 신어를 대상으로」, 『한성어문학』 34, 2015, 59-80면.
- 박재연,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45, 2014, 1-30면.
- 시정곤, 「사이버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2006, 215-243면.
- 윤경선, 「소셜미디어 트위터(Twitter)로 살펴본 신어 형성」, 『한국어 의미학』 42, 2013, 537-555면.
- 이기동, 「관용어, 은유 그리고 환유」, 『담화와 인지』 4(1), 1997, 61-87면.
- 이선영, 「국어 신어의 정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4, 2007, 181-193면.
- 이선영·정희창, 「절단현상과 의미 응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52, 2019, 269-289면.
- 이선희, 「신어 합성명사의 의미 형성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3.
- 이수진·김예니,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23, 2014, 232-262면.
- 이종열, 「정신공간을 통한 합성어의 인지적 의미해석」, 『언어과학연구』 16, 1999, 483-504면.
- 이찬규, 「의미 형성의 기반이 되는 유연성 원리로서의 배의성」, 『한국어학』 38, 2008, 269-306면.
- 임지룡, 「새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29, 1997, 201~233면.
- 임지룡, 「환유 표현의 의미특성」, 『인문논총』 55, 2006, 265-300면.
- 장혜연, 「신어의 조어 방식과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전영미·최동주,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2007, 65-66면.
- Fauconnier, G. & M. Turner,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ognitive Science』 22(2). 1998. pp133-187.

Radden, G. & Z. Kövecses,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In K-U. Panther & G. Radden(Eds.).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9, pp17-59.

접수일: 2020. 03. 05 총평일: 2020. 04. 19 게재확정일: 2020. 04. 28